

라미네이팅 업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

써멀 라미네이팅 필름 고급 포장화 주력



김 양 평
(주)지엠피 대표이사

단순하게 규모가 크거나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를 ‘초일류 기업’으로 명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동일 업종 내에서 인정받고 전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초일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재, 차별화된 역량과 부문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력을 바탕으로 라미네이팅 사업을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있는 핵심 사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 (주)지엠피(대표이사 김양평)를 찾았다.

(주)지엠피는 경영자의 확고한 경영 이념과 철학을 토대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펼치면서 현대사회가 명명하는 ‘초일류 기업’의 조건을 두루 갖춘 역량있는 써멀 기계 및 필름 라미네이팅 제조회사이다. 김양평 대표이사는 지난 1985년 5월 대산 기계를 설립, 이듬해 (주)대산



▲ (주)지엠피 Pioneer 시리즈



◀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주)지엠피

프라스틱 기계로 법인을 전환 하며 지금의 (주)지엠피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

1988년 서울 은평구에 필름 재단 공장을 신설한 당시 (주)대산프라스틱기계는 경기도 파주에 필름 압출 공장을 신설, 1991년 현재의 (주)지엠피로 상호를 변경하게 된다.

세계최고의 라미네이터 제조 회사로 기존 라미네이팅 업계를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있는 (주)지엠피는 라미네이팅 기계를 비롯한 단면용 옵셋 프린트 라미네이터에 적용하는 OPP 필름, 컬링과 스크래치가 없는 NYLONEX 필름, 자체 점착력이 가능한

STICKEYNEX 필름, 디지털 프린팅과 Large Format 그래픽 산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엠보싱 기술, 고속 데스크탑 라미네이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주)지엠피는 전 세계 90여개국에 라미네이팅 기계와 필름, 주변제품의 90%를 수출하고 있다.

1995년 독일 현지법인(GMP Germany Laminating System GMBH)과 영국(런던) 현지법인(GMP UK LTD.)을 설립했으며, 2002년 프랑스 현지법인(GMP PROGRAPHICS France Sarl)을 설립하는 등 현

지 생산과 판매,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가고 있다.

또한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에 합작 회사를 설립 운영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30여개국에 GMP Brand로 GMP제품 전문 대리점망을 구축, 지난 2000년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이미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라미네이팅 기계 공장, 압출 공장, 라미네이팅 필름 파우치 공장, 슬리팅 공장, 코팅 및 프린팅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지엠피는 2000년도부터

GMP

기계부문 대형화에 주력한 결과 2003년도부터 연간 1,000만불 이상의 매출이 거두고 있다.

특히 라미네이팅 기계는, 97년 200,000대 생산에 26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98년에는 277,000대 생산에 370억원의 매출로 전년대비 40%의 성장율을 기록하면서

단일 생산공장으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라미네이팅 기업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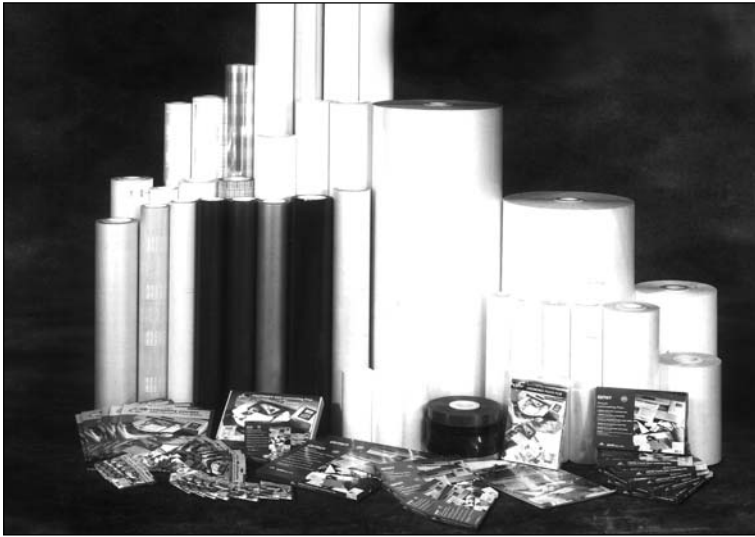
김양평 대표이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대형기계 및 인쇄산업용 써멀 라미네이터를 주력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

난 해 4월부터 출시한 써멀 라미네이팅 기계 Pioneer 시리즈는 기존의 수성, 유성, UV 코팅 등의 품질 문제와 화공약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주)지엠피는 용제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함



▲ (주)지엠피 공장내부 전경



◀ (주)지엠피 라미네이팅 필름

으로써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ROHS 나 유럽 환경 인증 등에 적합하게 됐다.

이러한 기계사업 뿐만 아니라 (주)지엠피는 필름 사업부문에서도 영역을 확대, 차별화된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8년도에 10,000M/T을 돌파한 라미네이팅 필름이 단일 생산공장으로는 미국의 GBC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치로 부상하게 된 것.

파우치 필름 (POUCH FILM) 생산설비의 자동화에 성공하여 기존기계의 생산수율을 80%에서 90%로 향상시키는 등 원가절감 효과에 의한

대폭적인 생산성 및 수익성의 결과를 낳았다.

또한 EXCELAM 1600COLD 등 35종의 신제품을 개발, 매년 20여종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업계최초 자체 연구소를 두고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주)지엠피. 이 결과 '합성수지 적층필름 라미네이팅 방법' 과 '라미네이트용 적층 필름' 등 55개의 발명특허와 52개 실용신안을 보유, 라미네이팅 부문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탁월한 경영능력과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라미네이팅 업계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양평 대표이사의 열정은 '先' 경영을 바탕으로 현재 (주)지엠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 대표이사의 경영 이념 '先'에는 "기술의 원조로서 사명을 다하자"는 '오리지널 (Original)', 세계시장을 선점해 신기술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블루오션을 창출하자는 '퍼스트 (First)', 주문이 떨어진 후 10일 이내에 제품을 공급하자는 신속&납기 준수의 '패스트 (Fast)', 위에서부터 술선수범 하자는 '리딩 (Leading)'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하기전에 선대응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꾀하자는 '비

포(Bedfore)'의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엠피 이름을 걸고 기술 경영과 전문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Blue Ocean”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히는 김양평 대표이사의 열정과 패기는 청년의 열정과 장인의 지혜를 뛰어넘는다. 기존에 형성된 시장에 잠식해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끊임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가는 (주)지엠피는 올해 초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으로 가입, 포장품질의 고급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지난 해 12월 말 OPP 필름에 표면강화처리를 함으로써 고급 포장재의 스크래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고안했으며 다양한 표면 처리 효과를 낼 수 있는 표면 써멀 엠보싱 처리 응용 소재의 개발을 추진, 인쇄 및 포장용

용기에 필요한 기계 기술 체계를 공조하는 등 시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연 공동 기술의 일환으로 한국기계연구원 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유도 가열 히팅롤러와 Flexo 인쇄기 공동 연구개발을 계기로 인쇄업 및 포장용 기계 산업 접목 기술로 향후 차세대 고속 매엽 라미네이팅기 개발 및 레이블 제조 기술 개발, RFID 등 인쇄업과 라미네이팅업, IT산업이라는 여러 산업 영역에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지엠피는 올해를 제2차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1년 여간에 걸쳐 경영혁신을 위한 4단계 경영혁신 전략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고 있다.

현재 1차 생산 및 경영환경 개선을 마치고,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2단계 및

원가절감 및 생산성 증대 3단계, 품질 개선 및 재무환경 개선을 위한 4단계를 추진 및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수출 증대로 향후 인쇄업계와, 포장업계 등으로 시장확대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력체제 유지 등으로 업계와의 교류협력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하는 김양평 대표이사.

2006년 중국 시장 유입으로 전 포장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재, 2001년 신축 필름 및 코팅공장을 준공하는 등 중국저가제품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한 김양평 대표이사의 열린 미래 경영을 토대로 (주)지엠피는 발전할 것이다. 라미네이팅의 선두주자 (주)지엠피, 이제 포장 및 인쇄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박초혜 기자